

우리가 기본소득을 원하는 이유

진형익

창원특례시의회
시의원(더불어민주
당 비례대표)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회원 진형익입니다.

다시 한번 계간지를 통해 회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아 참! 그리고 얼마 전에 저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지난 6월 1일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창원특례시의회)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응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を 올립니다. 또 다른 일상에서 기본소득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고민하게 된 계기는 바로 ‘삼성서비스센터’입니다.

대략 2014년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공과대 친구들끼리 나눈 이야기는 “학점과 토익 점수만 잘 관리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괜찮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배나 친구들도 그렇게 취업에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서관과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학점과 토익 점수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교하는 길에 삼성서비스센터의 수리기사님들이 길거리에서 농성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공과생이기도 했고, 단순히 ‘삼성’이라는 것 때문에 관심이 가서, 잠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

보았습니다. 사회를 잘 몰랐던 저에게 기사님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그 당시 저는 삼성서비스센터 수리기사님들이 삼성그룹의 정직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지도 않았고, 외주 용역으로 고용하고 있었던 사실에, “삼성이라는 글자가 붙는다고 삼성의 직원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우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월급제라기보다 오히려 건당 보수를 받는 임금체계였던 것 같습니다. 성수기에는 서비스 업무상 초과근로가 대부분이었고, 24시간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비성수기에는 최저 생활비도 벌지 못해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수리기사님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를 돌린 폐업(위장 폐업)하는 방법 등을 통해 수리기사님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학점과 자격증을 유지하면 취업할 수 있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더이상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참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본소득’ 말고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질수록, 우리 사회 다양한 격차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자리 형태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고 이에 대부분 시민은 좋은 일자리 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이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기도 했습니다. 로봇, 키오스크,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은 단순 기계조작, 판매·청소·경비·주문 등의 노동을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디지털 플랫폼 배달 대행, 프리랜서 등의 등장은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 임시계약직 및 불안정 고용 노동자, 사회적 취약 계층은 질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산업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는 높아지고, 내 집 마련, 내 일 마련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하다, ‘기본소득’을 알게 되었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떠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가장 근접한 것이 바로 ‘기본소득’이었습니다.

제가 7년간 알아 온 30살 된 동생이 있습니다.

장애(3급)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님에게 버려져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서 4년 전 수도권(인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도권으로 올라간 이유는 창원보다 아르바이트 수도 많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행사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먹고 살기 위해 도보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바이 배달보다 도보 배달을 선택했습니다.

도보 배달 일을 하면서 한 달에 평균 20~3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벌어?”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도보로 배달하는 한계, 배달 수수료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서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휴대폰 요금, 교통비, 월세인데, 동생에게 휴대폰 요금과 교통비는 배달 노동의 생존과 맞닿아 있는 지출입니다. 물론 다른 직장을 안 구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번번이 직장 구하는 건 실패했습니다.

구청, 시청, 행정복지센터, 국회의원 사무실, 의회 등에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담당이 아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을 안 하고 있으니 돌아가라’라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동생은 저한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도 하는데, 통장은 자꾸 마이너스인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최소한 인간답게 살고 싶고, 거리 노숙자가 되긴 싫어요”, “그래도 한 번씩은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싶어요”.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한 시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중 최소한의 소득 보장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하고, 최소한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기본소득’ 말고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도 저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양한 고민과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정 활동 하면서 ‘기본소득’을 풀어나가는 것도 저에게는 새로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과제에 있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고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